

# 금어 일섭의 대구에서 행적 연구

최은령\*

## 〈목 차〉

- I. 머리말
- II. 금어 일섭의 생애와 작품
- III. 금어 일섭의 대구 행적
- IV. 맺음말

## 국문요약

금융 일섭(金容 日燮)스님은 한국 근현대기 불교미술사에서 크나큰 족적을 남긴 입지적인 인물이다. 일섭은 불상(佛像), 불화(佛畵), 단청(丹青) 등 불교미술 전반에서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며 제자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섭은 자신의 기록이자 작업일지인 『연보』를 오랜 기간 작성하여 남겼다. 『연보』는 그의 작품 활동과 생애, 가족 및 교우,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소재지와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일섭의 작품 연구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섭의 『연보』에 기록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구에서 행적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일섭이 대구에서 행한 불사내용을 파악하였다. 일섭의 대구지역 행적을 통해 당시 불사의 성격, 작품 제작기간 및 제작과정, 회주, 회원의 구성 등 전반적인 불사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금어 일섭(金魚 日燮)은 1938년부터 1950년대 이전까지 김제 부용사를 거점으로 전라도와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의 여러 불사를 도맡아 작업하였고 1950년대부터 말년까지 대구 장수사에 거점을 두고 대구와 부산, 경상도 일대의 불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1950년대 이후 대구 중심의 활동은 일섭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작업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일섭의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불사 중에는 점집, 무당집, 수도원, 도덕협회(道德協會)의 신상(神像)제작에 참여한 일이 적지 않았고 또한 석고와 시멘트와 같은 새로운 재료를 불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근현대기 화승들이 종교성과 창의성의 경계에서 고민했듯이, 화승 일섭이 1950년대 이후 힘들고 피폐해진 사회상황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금어(金魚), 금용 일섭(金容日燮), 김일섭(金日燮), 연보(年譜), 근현대(近現代), 대구 장수사(大丘長壽寺), 김제 부용사(金堤芙蓉寺), 불상(佛像), 불화(佛畵), 단청(丹青)

---

## I. 머리말

일섭(日燮)스님은 한국 근현대기 불교미술사에서 크나큰 족적을 남긴 입지적인 인물이다. 일섭은 불상(佛像), 불화(佛畵), 단청(丹青) 등 불교미술 전반에서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며 제자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불교미술을 제작한 화승(畵僧)들은 대개 불상, 불화, 공예 등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했고, 일섭처럼 불상, 불화, 단청을 함께 작업한 화승은 찾기 어렵다.

한국불교미술에서 불교예술 작품을 제작한 화승에 대한 연구는 작가, 작품, 시대사의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화승에 대한 연구는 현존작품을 중심으로 비교적 세밀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화승은 일반인과 달리 개인 생애나 관련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인 화승의 일대기를 좀처럼 알기 어렵다.

일섭의 불교작품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이한 점은 유년시절부터 70대의 마지막 작품 때까지 『연보(年譜)』를 스스로 기록하여 남겼다는 사실인데<sup>1)</sup>, 최근 『연보』를 한글로 번역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그 실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일섭이 남긴 『연보』는 그의 작품 활동과 생애, 가족 및 교우, 예술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의 소재지와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일섭의 작품 연구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한글로 번역한 『금어 금용일섭의 『연보』 연구』를 바탕으로 일섭의 대구에서 행적에 주목하였다. 일섭은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일섭은 전북

1) 『연보』는 일섭이 창건한 전북 김제 부용사에 소장되어있으며, 일반인에게 『연보』가 처음 공개된 것은 2004년 <고승유묵:경계를 넘는 바람>전시 때이다. 이후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연보의 존재 및 대략적인 상황이 소개되었고, 일섭에 관한 연구는 유존하는 불화, 불상 작품을 중심으로 시기별 작품 경향이 분석되었다. 고성주, 『근대 탕화 작가 연구:김일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신은미, 『화승 김일섭의 불화 연구』, 『강좌미술사』 제26호, 2006, 787~810쪽; 김영희, 『금용 일섭(1900~1975)의 불상조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금용 일섭(1900~1975)의 불상과 예술관』, 『불교미술사학』제9집, 2010, 75~109쪽.; \_\_\_\_\_, 『금용 일섭(1900~1975)의 후기 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제14집, 139~178쪽.

2) 신은영, 『金魚 金容日燮의 『年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논문이 발표되면서 세로쓰기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섭의 작품세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 이어서 간행물과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앞으로 일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을 예고한다. 고경 감수·신은영 역주, 『金魚 金容日燮의 年譜』, 송광사성보박물관, 2016; 일섭문도회, 『근대 불모 일섭 스님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2016.10.8.

김제 부용사에서 대구 장수사로 작품활동의 거점지를 옮기게 되는데, 이후 일생에서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이게 된다. 일섭의 『연보』에 기록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구에서 활동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일섭이 대구에서 행한 불사내용을 파악하였다. 일섭의 대구지역에서 행적을 통해 당시 불사의 성격, 작품 제작기간 및 제작과정, 화주, 회원의 구성 등 전반적인 불사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불교미술 전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한 예술가로서의 일섭을 조명하고자 한다.

## II. 금어 일섭의 생애와 작품

### 1. 일섭의 생애

일섭(1901~1976, 도 1)은 가족관계, 작품 내역, 사승관계 등을 출생부터 71세까지 시간 순으로 『연보』에 상세히 기록하였다.<sup>3)</sup> 일섭은 『연보』(도 2)를 남긴 국내 유일의 화승이자 예술가이며,<sup>4)</sup> 일섭에 대한 관련정보는 『연보』뿐만 아니라 김제 부용사와 순천 송광사에 일섭의 비문(碑文)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도 1. 일섭스님  
(예용해, 『예용해전집1; 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236쪽 사진)

3) 『연보』는 일섭이 자신의 일생동안 작품목록과 자신의 삶, 가정사, 작품제작과정, 교유관계 등을 기록한 책이다.(크기 22.0×20.9cm, 본문 총 200쪽. 白紙墨書) 『연보』는 나이, 년월일을 기재하여 시간 순으로 기록하였는데 모두 음력으로 되어있고 일부 양력을 함께 표기한 경우도 있다. 『연보』의 음력시간은 해당년도와 나이에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여, 본고에서는 양력으로 변환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4) 시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평생의 작업일지와 작품세계관을 기록물로 남긴 예술가는 극히 드물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앤디 워홀(1928~1987)의 『앤디 워홀 일기』(팻 헤켓 엮음·홍예빈 옮김, 미메시스, 2009)라는 책은 앤디의 자필 기록이 아닌 대필 기록으로 원서분량 800여 쪽에 달한다.

5) 일섭과 관련된 비문은 『人間文化財第四十八號 佛母金容金日變先生碑』(김제 부용사, 1976), 『佛教美術曹溪山派中興傳承金容日變佛母碑』(순천 송광사, 1991)이다.



도 2. 年譜, 일섭, 근대, 22.0\*20.8cm, 종이, 김제 부용사.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183쪽 사진.)

일섭의 이름은 호적상 김갑병(金甲炳), 본명 김석우(金石雨)이며 출가해서 법명이 일섭(日燮)이다. 1901년 2월 6일(음력 1900년 12월 18일) 전라남도 화순군 외남면 천봉산 갈학리에서 김안모(父; 金安模, 52세)와 황화옥(母; 黃花玉, 42세)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sup>6)</sup> 일섭의 유년시절은 6세 때부터 14세에 송광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사촌형 김치옥을 비롯해 여러 서재를 다니며 유교경전 등을 학습하였는데, 당시 부모님의 연세가 고령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일섭 부모님의 교육열과 가정형편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7)</sup> [표 1 참고]

표 1. 일섭의 교육과정

6세	1905년(乙巳)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척치) 514번지로 이사. 사촌형 김치옥의 집에 머물며 임백언 서재에서 한글, 천자문 학습
7세	1906년(丙午)	김치옥 문하, 같은 마을의 이국찬 서재에서 『사자소학』, 『학어집』, 『계몽편』 등 학습
8세	1907년(丁未)	김치옥 문하, 같은 마을의 박통통 서재에서 『사략』을 수학
9세	1908년(戊申)	순천군 송광면 월산리의 조내성 서재, 조병환 문하 『사략』 수학
10세	1909년(己酉)	본가 서재에서 김치옥 문하, 『통감』 수학 같은 해 겨울에 송광면 덕봉리의 양정숙 서재에서 『통감』 수학

6)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1917년 1월 18일 병환으로 송광면 월산(토수리)에서 별세하고, 1921년 어머니가 2월 20일 토수리에서 척치리 514번지로 이사한다. 1928년 4월 6일 아버지 묘소를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척치리) 뒷산으로 이장한다. 1937년 10월 10일 보성 덕치리 514번지 본가를 팔고, 10월 18일 순천 송광면 월산(토수리) 서쪽 언덕에 있는 초가 1동을 사서 새로운 어머니의 거처로 삼은 듯 하다. 이듬해 3월에 은사 재를 지내고 어머니를 토수리에서 뵈고 김제로 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945년 10월 30일 모친 황씨가 87세로 돌아가시는데, 11월 2일 부용사에 도착해서 3일에 발인한 것으로 보아 부용사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일섭은 예용해와 인터뷰에서 “가세가 어려운 농가의 독자로 태어났으나 불문(佛門)에 들어가 장수한다는 말을 믿은 부모들은 유명(幼名)을 수연(壽延)이라 불렀고 마침내는 속연을 끊게 했다.”라고 불가에 들어온 이유를 밝혔다. 예용해, 『예용해전집1:인간문화제』, 대원사, 1997, 237쪽. 『年譜』에는 일섭이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기록했는데 인터뷰에서 독자라고 한 것을 보면, 유년시절에 형제들이 모두 사망하였던 듯하다.

11세	1910년(庚戌)	몸에 척치 서재가 폐지, 덕봉리는 거리가 멀어 휴학
12세	1911년(辛亥)	김석병형 집에 머물며 보성군 문덕면 강각리 임씨집 서재와 박행포 형집 서재에서 『통감』수학
13세	1912년(壬子)	강각리의 사촌형 김치옥 문하에서 『통감』수학
14세	1913년(癸丑)	11월 2일; 전남 순천군 송광면 송광사 문수전 임유완 화상에 득도 11월 20일; 본사 서미봉계섭 스님에게 머리를 깎음 12월 30일; 조추 강봉우 화상에게 5계를 받음
15세	1914년(갑인)	노사 황우송선명 스님으로부터 사미과를 수료 3월; 송광사 보명학교 입학
16세	1915년(을묘)	3월 27일; 보명학교 1학년을 수료, 1등, 2학년 진급, 학력 우수로 급장
17세	1916년(丙辰)	3월 25일; 보명학교 2학년 수료, 4등
18세	1917년(丁巳)	3월 27일; 보명학교 졸업, 1등 수상 4월; 송광사 중등과 지방학림 입학
19세	1918년(戊午)	3월 27일; 송광사 지방학림 1학년 수료, 5등
20세	1919년(己未)	3월; 지방학림 2학년 수료, 개근상
21세	1920년(庚申)	3월 25일; 지방학림 3학년 수료, 우등상 수상
22세	1921년(辛酉)	3월; 지방학림 졸업식에 불참

일섭은 14세에 전남 순천 송광사로 출가하게 되는데, 청오유완을 은사로 일섭(日燮)이라는 법명을 받고 법호는 퇴운(退耘)이었다. 송광사에서 사미과를 수료한 후 일섭은 15세에 보명학교에 입학, 보명학교를 졸업한 후 4년제 중등과 지방학림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지방학림 3학년 때 은사 청오가 폐병으로 순천 동화사에 있다가 송광사 문수전 별당에서 입적하였다. 일섭은 오랫동안 은사의 기일을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일섭이 불교예술에 입문하게 된 것은 지방학림 2학년 때 1919년 조계산과 화승 한봉린(韓鳳麟)을 통해 그림을 접했고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졸업 무렵에는 화승의 길을 결심했고 당시 뛰어난 화승이었던 보응문성과 호은정연으로부터 사사를 받는다. 이때 일섭은 마치 구법승의 구도여행과 같이 화승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 떠나는데, 약 8개월 동안 28개 사찰을 순례한다. 1922년 6월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출발하여 전남, 전북, 충남, 서울을 거쳐 1923년 2월 전남 순천으로 돌아오기까지 각 사찰에서 많은 작품들을 실견하였을 것이고 찾

<sup>8)</sup> 『연보』에서 1919년 4월 15일 은사 청오화상이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이후 1938년 3월에 은사 재를 지내고 토수리에서 어머니를 뵈고 김제로 왔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1959년 10월에도 송광사에 가서 문수전에서 자고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척치에 가서 성묘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아간 화승을 만나 함께 머물면서 그림을 직접 배웠다. 일섭이 화승을 찾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첫 화승은 호은정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일섭은 전남 곡성 태안사로 처음 찾아가서 전북일대의 사찰까지 돌며 충남 천안 성불사까지 그의 뒤를 쫓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자 그동안 50일간 기다린 여정의 발걸음을 서울로 돌린다. 서울은 화사 보응문성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곧 선생을 만나 3개월간 그의 밑에서 그림을 배운다. 일섭은 호은정연 선생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충남 천안 성불사에 오는데, 이번에는 바로 만남이 이루어져 2개월간 함께 작업을 한다. 이로써 그의 화승을 찾아 떠났던 배움의 여정도 끝나게 된다.

[표 2 참고]

표 2. 일섭의 화승을 찾아 떠난 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1922년	6월 8일	전남 순천 송광사	전남 곡성 태안사
	6월 10일	전남 곡성 태안사	전남 곡성 도림사
	6월 12일	전남 곡성 도림사	전북 남원 선은사
	6월 13일	전북 남원 선은사	전남 임실 죽림사
	6월 14일	전남 임실 죽림사	전북 전주 남도포교당 전주 청수정에 머물던 화사 이춘화만총(李春花萬聰) 만남
	6월 16일	전북 전주 남도포교당	전북 전주 승암사
	6월 17일	전북 전주 승암사	전북 완주 위봉사교당
	6월 18일	전북 완주 위봉사교당	전북 완주 단암사 → 전북 완주 송광사
	6월 19일	전북 완주 송광사	전북 완주 봉서사
	6월 20일	전북 완주 봉서사	전북 완주 학림사
	6월 21일	전북 완주 봉서사	전북 익산 문수사
	6월 22일	전북 익산 문수사	전북 익산 옥련암
	6월 24일	전북 익산 옥련암	충남 논산 관촉사
	6월 26일	충남 논산 관촉사	충남 공주 신원사
	6월 28일	충남 공주 신원사	충남 공주 갑사
	6월 30일	충남 공주 갑사	충남 공주 신흥암 → 충남 공주 동학사
	7월 2일	충남 공주 동학사	충남 공주 영은사
	7월 3일	충남 공주 영은사	충남 공주 마곡사

일정	출발지	도착지
7월 5일	충남 공주 마곡사	충남 아산 봉곡사
7월 7일	충남 아산 봉곡사	충남 아산 오봉암
7월 8일	충남 아산 오봉암	충남 천안 성불사 50일간 머물면서 기다렸으나, 화사 이정연(湖隱定淵)은 부산불사 때문에 만날 수 없음
8월 30일	충남 천안 성불사	서울 죽점정 대흥여관
8월 31일	서울 대흥여관	삼각산 봉원사
9월 2일	서울 봉원사	서울 묘련연화사
9월 3일	서울 연화사	서울 개운사
9월 6일	서울 개운사	서울 청련사 화사 김보응(普應文性) 선생을 만남. 김보응선생으로부터 9월 5일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
12월 4일	경성	충남 천안 성불사 화사 정연을 만남. 2개월간 정연화사로부터 각 탕화의 출초를 부탁받음
1923년 2월 1일	충남 천안 성불사	본가 어머니를 친견

일섭이 본격적으로 사찰의 불교미술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24세(1923년)부터이다. 처음에는 스승을 따라 전국의 사찰 문화재를 보수하고 조성하는 일에 참여한다. 일섭은 24세에 14세 박춘심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일섭의 아들 재영은 18세에 사망하고 현재 그의 후손은 외손이 남아있다.<sup>9)</sup> 일섭은 『연보』에서 매일의 작업일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가족의 주요 대소사에 대한 기록이다. 자녀의 출생일과 시간을 기록하고, 학교에 입학한 일, 지방에서 작업하는 동안 부인과 자녀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등도 기록하고

<sup>9)</sup> 신은영, 앞의 논문, 9~14쪽 참조. 일섭의 아들 김재영은 1948년 10월부터 갑자기 병이 들어 3~4개월을 고통스러워하다 1949년 2월 7일 18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일섭은 경을 읽고 부모의 위패를 봉안하며 재영의 쾌유를 빌었지만, 군산 개정병원에서 사망하여 화장한다. 아마 장성한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일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연보』에 작품번호를 재영의 죽음 이후부터 오기하여 기록한 것이다. 일섭은 『연보』에 불사했던 작품을 일자 앞에 1~504까지 번호를 매겼는데, 50세 1949년(己丑) 2월 재영의 사망에 관한 기록 다음 3월부터 197의 작품번호를 177로 오기하여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일섭은 작품번호는 1~196(19세~49세) / 177~504(50세~71세)로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연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섭의 정확하고 면밀한 성격을 생각한다면, 이런 오류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1949년 3월 177로 기록한 전남 광주부 무등산 원효사 불사에서, 화주까지 기록하고 마지막에 ‘깨끗한 장삼과 가사 한 벌을 올린다.’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있어 일섭이 작품활동에 매진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일섭이 독립적인 작품활동을 하면서 1938년 김제의 초가를 매입하여 부용사(芙蓉寺)<sup>10)</sup>를 창건하였는데 이후 이곳에서 불사와 제자 양성의 기반이 되었다. 일섭이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전북 김제에서 부용사를 창건하고 작품활동의 근거지로 했던 이유는 1935년 김복진과 경쟁했던 금산사 미륵대불 소조상 입찰에 지원했던 것을 계기로 김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sup>11)</sup> 이때 심사위원의 높은 호평을 받고도 최종 선택은 김복진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입찰 직후 금산사 미륵불좌협시상의 보수를 하고, 1937년에는 4개월간 금산사에 머물며 미륵불상의 수정과 협시불 등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그해 겨울까지 김제에서 영가 단청, 관우상, 불상 조성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듬해 1938년 김제 부용역 앞 백양사 포교당 부용사로 가족 모두 이사를 한 것이다. 일섭이 금산사 불사 전까지는 전남, 충남, 경남 등 거점을 두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부용사에 '성예원(聖藝院)'<sup>12)</sup>(도 3)을 설립하여 화원을 양성하면서 1950년 이전까지 김제 부용사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1950년 6·25사변 이후 대구 장수사로 거처를 이동하여, 이때부터 대구를 포함하여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일섭은 대구에서 상당 기간 활동하면서 장수사에 현지처를 두고 생활했으며 『연보』의 가족사항에서 '이복순'이라는 인물이다.<sup>13)</sup> 『연보』를 살펴보면 63세 7월에 대구 처의 아버지 생신으

10) 부용사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있는 태고종 소속 사찰로, 현재 일섭의 둘째딸 김옥진(1928~2011)의 차녀 이경주(李暲珠)가 부용사를 지키고 있다.

11) 일섭은 1936년 1년간 서울, 경기도의 불사에서 화원 김보응, 이석성(화경)과 작업하는데 이들은 금산사 미륵불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김보응은 화원 보응문성(普應文性, 1867~1954)으로 일섭이 1922년 서울 청련사에서 화사 김보응선생을 만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925년 전주 남고사 팔상각부의 그림을 시작으로 1937년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와 그 말사의 불사까지 오랜 기간 사제간으로 작업을 해왔다.

12) 성예원에 관해서는 『年譜』의 마지막 장의 표지 내부 상단에 관련 신문 기사를 오려 붙여놓았다. "畫員聯合聖藝院設置" 제목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였는데, 기사는 화사 김일섭의 약력과 주요 불사활동, 성예원 설립의 동기 등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인데 일섭의 재능에 대해 매우 칭송하고 있다. 성예원의 설립 내용 본문은 다음과 같다. 『畫師金日變和尚은 當代稀有的의 佛畫界天才로서 佛敎藝術界의 至寶이다. (중략) 秀才요 畫壇의 王座□□한 青年인데 더욱□殿에 所有인 湖南 練芙蓉驛前芙蓉寺에다 畫員聯合聖藝院을 設置하여 일반의 便宜를 圖하여 예술계의 번창을 위하여 연구에 연구를 가하여 후진을 지도하려는 계획이라하여 일반의 기대가 만타고 한다.』 (기사원문을 띄어쓰기 사용하여 발췌. 신문기사는 신은영, 앞의 책, 384쪽 사진9 참조)

13) 신은영, 앞의 논문, 40쪽. 일섭의 『年譜』에 기록된 가족은 김석우(본인), 박일생(부인), 김옥진(딸), 김복진(딸), 이복순의 순서로 4명이다.



도 3. 불상불화전문연구성예원, 1938~1943년,  
141.0×21.5cm, 나무, 김제 부용사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74쪽 사진.)

로 가족연회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있고, 64세 7월에도 대구 처의 어머니 사망을 기록하여 대구 장수사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장수사와 관련된 인물로 짐작된다.<sup>14)</sup> 일섭은 대구 활동에서 이복순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도 단편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복순이 일섭의 내조 역할을 하게 된 시기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추론으로 짐작할 뿐이다.<sup>15)</sup>

1960년 12월 18일 일섭의 회갑은 김제 부용사에서 4일간이나 잔치를 열었는데 딸과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쏟았다고 하니

본가의 가족들로 구성된 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섭은 1953년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의 불사에 중점을 두면서 장수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병원진료나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한 기록 또한 대구에서의 기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섭은 해마다 설 명절만큼은 김제 본가에 가서 지내고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

14) 대구 선법사(舊 장수사) 칠성탱의 화기에 『都監信士 李福夏 別座信士 李福基 別佛 李福順』으로 불사에 참여한 이복돌, 이복기, 이복순은 모두 형제관계로 장수사와도 관련이 깊은 인물로 추정된다. 이복돌은 일섭 아래에서 배워, 대구 신광사 불화 조성에는 처남으로 지칭하며 작품을 함께 하였다. 장수사 칠성탱은 『年譜』에 1953년 6월 17일에 시작하여 8월 20일에 완성한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실제 화기에서도 8월 20일에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어 『연보』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5) 일섭의 대구 장수사에 대한 언급은 1952년 10월 21일 장수암에 도착했다는 첫 기록이 보이며, 1953년 6월 17일~8월 20일 두 달간 장수암 칠성탱을 그리면서 이후 장수사와 관련된 불사가 확인된다. 대구 현지처 이복순을 지칭하여 아내라는 표현은 “1955년 1월 27일 처가 시내에 가서 식모 순영이를 데리고 왔다.”, “1956년 6월 5일 우리 부부가 병이 나서 고통스러워하다.”, “1957년 1월 21일 대구의 내자가 와서 함께 미륵기도를 하다.”라는 기록을 통해 대구에 내려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 이후 대구에 있으면서 1960년 2월 13일에 “오전 10시에 옥아가 태어나 이름을 선옥으로 짓다.” 5월 22일 “밤에 선옥이가 열병이 갑자기 나서 죽을 정도로 위급하였으나 1주일 후에 조금 차도가 있다.”는 선옥이라는 아이의 출생과 그 해 병고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후 기록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어 의문으로 남는다.

일섭은 김제 부용사와 대구 장수사를 수시로 오가며 이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의 각종 불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그가 70세 가까운 나이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연보』에서 그는 53세에 금연을 하였고, 60세에 의치를 하였고, 68세에는 전북 고산읍에서 단청작업 중 현지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병력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때 전북 이리에 있는 병원으로 대구 아내와 본처가 날을 달리 하여 병문안을 다녀갔고 김제의 아내는 장모까지 동행한 온 것을 보면, 일섭은 김제와 대구의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 만년의 일섭은 사찰불사 활동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공모전 참여와 협회 창립, 각종 저술활동<sup>16)</sup> 등 근현대 불교미술계를 주도하는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또한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며,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로서 당시 불교미술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일섭은 당시 불교미술 회원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의 학식을 겸비한 예술인이었다.

## 2. 일섭의 작품

현재 일섭의 작품들은 당시 의뢰했던 사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없어졌거나 이전한 사찰도 많아서 그의 작품은 전하지 않거나 혹은 경매에 나오기도 하는 실정이다.<sup>18)</sup>

일섭은 그가 남긴 불교미술작품의 화기에 ‘금어 금용 일섭(金魚金容日燮)’으로 자신을 표기하고 함께 작업한 제자나 동료들을 ‘회원(畫員)’으로 표기하였다.

일섭은 작품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제자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졌기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는 어렵다고 한다. 일섭의 작품비용에 대한 사례로 신중탱을 그려 준 가격으로 쌀 3가마니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작품 제작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마저 함께 한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기에 가정경제는 주로 일섭의 부인이 담당하였다. 일섭의 부인은 일섭이 알려 준 육십갑자를 통해 신도들에게 사주 등을 봐 주었으며 그로 인해 부용사는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sup>19)</sup> 일섭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밥을

16) 金日燮, 『佛敎와 藝術運動』, 『佛敎界』25, 佛敎界社, 1969; \_\_\_\_, 『佛敎의 藝術運動』, 『佛敎界』29, 佛敎界社, 1969; \_\_\_\_, 『佛敎와 藝術運動(四)』, 『佛敎』1, 佛敎社, 1970; 金日燮, 『現實에서 찾아보는 佛敎常識』, 삼영출판사, 1972.

17) 김영희, 『금용 일섭(1900~1975)의 후기 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제14집, 2012, 142~145쪽.

18) 신은영, 앞의 논문, 71쪽.

주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 값은 제대로 받은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단청을 할 때 색을 칠하거나 심부름 등을 하다가 회원으로 등단하기도 하였다.<sup>20)</sup> 그의 회원들은 김재 부용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때 부용사 근처의 일반인들이었고, 대구 장수사에 가서는 대구 처가식구와 대구 지역민들이었다. 특히 원준은 『연보』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구에 있을 때 주유소 직원이었다가 후에 일섭의 아끼는 회원이 된다.<sup>21)</sup> 원준은 한때 일섭의 불화 초지 등 서류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다가 몇 달 후에 일섭을 찾아와 용서를 빌기도 하였다. 일섭은 원준의 결혼소식, 후에 사고로 사망한 소식도 기록하였다. 그의 연보에 여러 차례 기록되는 회원들 가운데 현재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단청작업은 사찰 전각의 내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전과정을 진행하므로, 작업공정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야외작업인 만큼 육체적으로도 힘든 작업이다. 일섭은 단청에서도 특출난 실력을 발휘해 많은 단청불사를 한다. 그 중 1959년 7월 12일 대구 신암동 신흥사 단청 불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섭이 페인트(뽀끼) 화가의 단청을 중지시키고 청토(靑土)로 입채를 시작해 내외부 단청공사를 마쳤다고 한다.<sup>22)</sup> 이 상황은 당시 사찰의 단청작업에 페인트로 채색하는 일반화가의 활동이 동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일섭이 사찰 단청에 페인트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일섭의 불사 가운데에서 가장 뜻 깊은 작업은 1961년 순천 송광사 대웅전 단청이었을 것이다. 송광사는 출가하여 학업에 정진하면서 화승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곳이었기에 불사를 진행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이다. 송광사 불사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는데 1월 26일 송광사 주지가 편지로 단청작업을 요청하여, 2월에 송광사를 방문해서 주지를 뵈고 공사대금을 350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공사는 송광사 대웅전의 내외부 단청, 대웅전 내부 벽화 및 각종 불화, 종각 단청의 세 작업으로 나누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대웅전 단청이 시작되었는데 57일간 회원 28인과 인부 950인이 참여한 대작업이었다.

19) 신은영, 앞의 논문, 10쪽.

20) 신은영, 앞의 논문, 15쪽.

21) “1955년 1월 14일 원준이 대신 제유소에서 한갑과 다른 1명 등 3인이 왔다.” 신은영, 앞의 논문, 154쪽. 원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이며 바로 2월부터 대구와 경북 불사에 회원으로 참여한다.

22) “7월 12일 대구시 신암동 신흥사로 가서 단청에 대해 말을 끝내고 페인트(뽀끼) 화가의 단청을 중지시켰다. 다음날 비계설비 중에 석산공장(石山工場) 주인이 와서 반대해서 일이 중단되고 16일 비계를 완성해서 청토로 입채를 시작했다.” 신은영, 앞의 논문, 167쪽. ‘뽀끼’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는데, 일섭이 26세 때 송광사 응접실을 ‘벤키’칠했다는 기록도 있다.

6월에 대응전 내부 벽화와 괘불, 후불탱, 신중탱을 화원 11인이 25일간 완성하였다. 8월에 시작한 종각 단청은 11일간 화원 9인과 인부 100명이 함께 진행하였다.<sup>23)</sup>

1960년대는 일섭이 화승으로서 걸어온 길에서 최고 전성기였다. 1969년(70세)에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고 비교적 크고 중요한 불사를 주도했다. 1968년 서울시 성북구 수월암 불사는 3개월간 대응전 단청과 후불탱, 신중탱 등을 조성하였는데 화원을 포함해 5백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일섭은 서양화법의 구사에도 능하여서 1938년 총본산이었던 조계사 대응전 <후불도>를 제작하였으며, 이 불화는 당시의 불교잡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는 불화에 서양화법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밑그림에 있어서도 다른 불화들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일섭의 작품 중 순천 송광사 <칠성도>(1925년)와 김제 부용사 <아미타삼존도초본>(1940년)과 같은 작품들은 새로운 도상과 기법들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근대적 요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송광사 <칠성도>를 보면, 본존인 치성광여래는 마치 예수를 연상시키듯 곱슬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려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에 강한 음영을 주어 굴곡이 느껴지게 하였다. 권속들 중에는 소설 『삼국지』의 삼화에 등장하는 인물상,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인물, 서양식 가발을 쓴 인물, 일본 여인의 머리와 복식을 한 인물 등 기존의 불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또한 화면 전반적으로 서양화의 명암법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아미타삼존도초본>은 화면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극락과 지옥의 모습을 관음·지장보살과 함께 서로 대조되게 표현하여 그림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sup>24)</sup>

일섭은 1926년 백양사 삼존상을 시작으로 1970년 울산 문수암 보살상까지 『연보』에 기록된 불상작품만 1,000여점에 이른다. 일섭이 수화승으로 독립하여 처음 불상을 조성한 것은 김제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입상을 제작한 36세인 1935년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스승인 보응문성과 춘화만충, 한봉린 등을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섭은 여래상을 비롯하여 보살상, 나한상, 사천왕상, 시왕, 동자상 등 다양한 종류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여래상 중에서 존명을 밝힌 경우는 미륵불, 석가불, 아미타불이며 그 외에는 본존상, 좌불, 삼존불상 등으로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노년에는 삼세불, 삼신불과 같은 새로운 도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보살상 중에

23) 신은영, 앞의 논문, 179~181쪽.

24) 최엽, 『마곡사 화승 약효와 동시대 활동했던 화승들의 근대기 불화』,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224~225쪽.

는 관음보살상이 가장 많고 지장보살상, 대세지보살상, 미륵보살상 등의 순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민간신앙과 관련있는 독성상, 칠성상이나 중국에서 널리 신앙되었던 관우상도 제작하였다. 심지어 국제도덕협회와 증산교, 수운교, 천도교, 무당, 접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불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종교인 국제도덕협회에 봉안되는 미륵불상을 단독으로 많이 제작하였다.

재료적인 면에서는 흙을 사용한 소조불상을 가장 많이 조성하였으나 나무와 돌 등 전통적인 재료부터 석고, 시멘트 등 근대 이후의 새로운 재료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였다.<sup>25)</sup> 석고와 시멘트는 1950년대 이후부터 사용하였고 이러한 재료는 크기의 자율성, 대량 제작, 빠른 제작기간 등 제작공정에서 편의성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특히 석고로 만든 불상 거푸집(范)이 남아있는데, 안면부와 머리 뒷부분이 따로 만들어져 앞뒤로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양식상 모두 60년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푸집의 입술이나 귀 부분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보아 여러 번의 불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도 4, 도 5)



도 4. 관음보살의 얼굴 거푸집, 근대, 34.5×21.5cm, 돌, 김제 부용사

도 5. 나한의 얼굴 거푸집, 근대, 33.2×29.8cm, 돌, 김제 부용사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192쪽 사진.)

일섭은 많은 수량의 불상을 제작하면서 불상의 양식면에서는 조선시대 불상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도상이나 재료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근대 이후 건축이나 공예에 사용되었던 시멘트와 석고를 과감하게 불상조성에 시도한 점이나, 또한 불교가 아닌 다른 신상(神像) 조성에 참여하여 다양한 도상을 수용하는 포용성을 보여준다. 실제 일섭이 작품을 위해 연습한 밑그림 자료에는

25) 이숙희, 『금융 일섭스님의 조각세계』, 『근대 불모 일섭 스님의 재조명』 학술세미나자료집, 2016.10.8. 69~72쪽.

26) 김영희, 앞의 논문, 167~169쪽.

예수, 공자, 성모마리아 등의 여러 도상들을 먹으로 섬세하게 그린 습작들이 여러 점 남아있다.

일섭은 작품에 대한 자세와 정신에서 과거 선배 화승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작품 활동의 내용은 그가 불교미술을 하는 화승이면서도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 Ⅲ. 금어 일섭의 대구 행적

일섭의 대구에서 본격적인 활동은 대구 장수사<sup>27)</sup>를 거점으로 하여 가까운 곳의 작품은 장수사에서 작업하여 이운하고, 부산이나 경남 경북의 먼 곳 불사는 직접 가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일섭은 평생을 화승으로서 작업한 중요한 두 거점지였던 김제 부용사와 대구 장수사를 1962년에서야 사찰로 정식 등록한다. 전국 사찰의 불사를 진행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등록이 늦어진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부용사와 장수사는 사찰로서의 성격보다 일섭의 작품 제작소와 집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겠다.<sup>28)</sup> (도 6, 도 7) [표 3, 표 4 참고]



도 6. 대구 장수사 전경

<sup>27)</sup> 장수사는 현재 선법사로 사명을 바꿨으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하며 일섭스님이 주석하실 때와 같은 곳에 있다. 현재 불교 종단에 소속되지 않고 1인 경영으로 주지는 이수영이다.

<sup>28)</sup> 63세. 1962년 8월 24~9월 27일 부산 온천동 금정사 단청을 하는 사이에 부용사와 장수사 두 절을 등록했다. 신은영, 앞의 논문, 184쪽.

표 3. 일섭의 대구 장수사 불사

기간	작품	내용	회원
1953년 6월17일~8월20일	칠성탱	조성	일섭
1954년 9월24일	본존상, 미타상, 지장상	가금	일섭
1955년 3월20일~6월6일	집(범어동1구7번)	건축	8월2일 이사
1955년 10월11일~10월22일	산신탱, 용왕탱	조성	일섭,창영
1957년 5월9일~11월8일	미륵불상	조성	일섭,원준
1958년 1월27일~2월13일	집	건축	대목 이씨
1958년 6월28일~7월15일	석조관음불	조성 (12월도난)	일섭
1960년 1월	앞3칸부수고,동쪽2칸세움	건축	대목 이씨,차씨
1960년 2월	불화	조성	일섭
1960년 윤6월	집 기둥	조성	이복기
1960년	본존상	재 조성	일섭



도 7. 김제 부용사 전경

표 4. 일섭의 김제 부용사 불사

기간	작품	내용	회원
1958년 1월8일~1월24일	관음,세지입상(3척5촌, 시멘트)	조성	일섭
1961년 11월	법당 목재를 김제 공덕면 양곡리에서 옮겨옴	건축	정진상,박유중,대목 유씨
1962년 2월 16일	산신각	건축	
1962년 5월11일~6월 18일	법당 상량식,법당 기와올림	건축	
8~9월	사찰 등록		
8월17일~63년1월19일	산신탱	조성	일섭
1963년 5월12일	법당 뒷방다락, 법당 앞쪽 길을 틈	건축	

기간	작품	내용	회원
9월19일	법당 봉불식		
9월20일~10월3일	칠성탱	조성	일섭
1964년 1월12일~4월6일	미타상,미륵상(나무,흙)	조성	일섭,총렬
4월20일	범종	조성	임삼술
5월8일~5월19일	본존불,미타불,미륵불	개금	일섭,유종,총렬,정우
7월3일	불단	개설	일섭,진만,총렬
11월28일~12월15일	산신각	단청	일섭,삼렬,도성,우순
1965년 8월15일~8월21일	관음보살,세지보살상	개조	일섭
8월16일~	아랫집 뒷방 2개 철거	개수	김영도(조카)
1967년 4월6일	불단 6성탱	조성	일섭
1968년 1월20일~2월15일	대웅전	단청	창영처소 위탁
7월26일~10월	원가 객실3칸,창고,목간 등	개수 건축	
12월22일~1969년1월16일	후불탱,용왕탱	조성	일섭,광성,명신

건립 초기부터 부용사는 사찰의 성격보다는 일섭의 자택이면서 제자 양성과 불사를 위한 작업실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실제 일섭의 『年譜』에서 부용사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sup>30)</sup> 부용사의 위치는 부용역에서 1.3km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전국적으로 작업의뢰가 쇄도했던 일섭에게 매우 적합한 곳이었던 것 같다.

일섭의 대구에서 행적은 일섭의 『연보』에 기록된 불사내용을 정리하여, 그 중에서 대구지역 중심의 불사가 시작되었던 1950년대와 회승으로서 명성을 얻은 1960년대로 나누어 그의 작품활동을 중심으로 작품내용, 제작방식, 회원, 가족 등 일섭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1950년대

일섭이 대구에서 첫 작품은 1951년 7월 24일 정혜사에 도착해 다음날 불사

<sup>29)</sup> 김영희, 앞의 논문, 18쪽. 1945년에 일섭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부용사에서 발인한다.  
<sup>30)</sup> <작품 178> 2월 3일 전주 대원사 지장, 인왕 2축을 집에서 조성하다. ; <작품 179> 2월 27일 부안 변산의 불석사 산신, 관음 2축을 조성하고 달마 1축을 윤 2월 10일 집에서 완성하다. ; <작품 193> 동년 3월 집에 재앙이 있어 파손되었는데 ... ; <작품 181> 8월 중에 집을 수리하고 인왕도 함께 하다. 신은영, 앞의 논문, 141~145쪽.

를 시작한 일이다. 이때 여러 곳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창영과 함께 내려와 작업했다. 다음해 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영도 법화사 불사를 하면서 해인사 불화도 작업하는데, 부산시 양로원 미술원 조직부장에 임명되는 것을 봐서<sup>31)</sup> 이제 경상도에서 시작하려는 단계였음에도 당시 그의 인지도를 짐작할 수 있다. 5월에는 며칠 경주에서 유적지를 관람하고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대접받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1953년까지는 대구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김제 부용사에서 경상도 지역의 여러 불사에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은 1952년 10월 대구 부인교당 불화를 대구에 있는 최장원 화실에서 그렸다. 1953년 9~11월에 경산 중심사 불사를 하던 중에 10월 전남 목포에 내려가지 불사를 하고 11월에 다시 경산 작업을 마무리한다.

일섭이 본격적으로 대구 중심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4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대구 장수사에 거처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불사의 작업공정을 맞춰가며 여러 곳의 불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구 대원사 불사의 경우에 5일 만에 불상을 완성하고도 회칠과 회향까지 2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대구 일대의 다른 불사를 동시에 작업하기도 하고 부용사에 잠깐 다녀오기도 한다. 일섭은 이 시기 창영과 함께 대구로 내려와 주로 작업을 했고, 1954년 5월에 부용의 아내와 창영의 아내가 함께 내려와서 며칠 있다가 간 것을 보면<sup>32)</sup> 거주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5년 1월 홍원준이 『연보』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 일섭을 찾아왔다. 일섭은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고 그 첫 제자가 원준이었다. 원준은 그해 2월부터 대구 불사에서 함께 동행하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일섭은 1955년 대구 옥천사의 금불을 조성하면서 회원 장원과 함께 만들어 이운하였는데, 장원은 전주에서도 불상조성작업에 함께 참여해서 불상에 특기를 보이는 인물인 것 같다. 특이한 점은 기록에서 다른 회원에서는 없는 ‘弟’를 함께 표기한 점이다.

1955년부터 대구 장수사에서 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작품을 완성하고 ‘이운(移運)’이라는 단어가 기록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대구 장수사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로 작품이 봉안될 수 있었다. 일섭이 장수사를 장수암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작은

31) “1952년 12월 6일 부산시 양로원 미술원 조직부장 임명 전보를 받다. 순남과 함께 부용사를 출발하여 7일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창영과 현오가 미중 나오다.” 신은영, 앞의 논문, 150쪽.

32) “1954년 5월 27일에 처가 창영의 처와 함께 부용에서 와서 6월 1일 돌아갔다.” 신은영, 앞의 논문, 153쪽.

규모의 사찰로, 일섭은 사찰 내에 일섭의 거주·작업공간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sup>33)</sup> 이후 대구에서 불사요청이 더욱 쇄도하게 되는데, 일섭의 불사 착수는 대부분 불사를 위해 의뢰자가 장수사로 직접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여 성사되었다.<sup>34)</sup> 심지어 충남 강경 정양사의 불사는 직접 일섭을 데리러 와서 강경으로 동행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때 강경으로 대구 아내가 와서 미륵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얼마되지 않아 대구로 둘째딸 복진이 다녀간다. 당시 일섭은 대구에서 현시아내와 생활하고 있었지만 본가 가족과 관계는 소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도 8. 대구 장수사 미륵불상, 1957년, 약 4m, 시멘트, 석고.

일섭은 대구 장수사에 1957년 5월 9일 미륵불사를 시작하였는데 불상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현재 장수사에는 야외에 약 4m의 거대한 미륵불상과 불상 주변에 시멘트 벽이 설치되어있는데, 일섭의 기록과 동일하여 거대불상의 당시 조성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도 8)

일섭은 야외에 거대 미륵불상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우물 뒤쪽으로 위치를 정하여, 그곳에 있던 청석을 파내는데 6월 2일에 끝낸 걸로 봐서 엄청 큰 바위였던 듯하다. 6월 4일부터 그곳에 시멘트로 기초를 다지고 단을 높이 세운 후 뒷벽, 동쪽벽, 서쪽벽, 좌우 축대 순으로 시멘트로 공사를 마쳤다. 7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미륵불상 조성이 시작되는데 [좌대→하반부→중간부→머리 부분→좌우날개] 순으로 7월 27일까지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었다. 8월 19일부터 [얼굴→상부→양손→하부→발과 연화대좌] 순서로 9월 18일까지 세부적인 조각을 한 후에 10월 5일 점안하였다. 이로써 불상의 조각은 완성되었고 한 달 후 11월 8일 복장을 넣으면서 다시 점안한다. 일섭이 기록한 장수사 미륵불상의 조성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골격을 시멘트로 만들고 외면과 세부적인 표현을 석고로 다듬

<sup>33)</sup> “3월 20일 대구시 범어동 1구7반 새집에 기등을 세우고 25일 나무일을 마치고, 윤3월에 흙일을 마친다. 6월 6일에 도배하여 8월 2일 새집에 이사하다.” 신은영, 앞의 논문, 155쪽.

<sup>34)</sup> 불사를 요청한 사찰의 신도, 주지, 화주들이 일섭을 찾아와 부탁하여 이루어졌다. 1958년 9월 10일 대구 남산동 선운사 불사에 대해서 “말로 부탁하여”라고 『연보』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어 조각한 것을 알 수 있다. 4m 규모의 장수사 미륵불상을 제작하는데 일섭과 1명의 보조화원이 3개월간에 완성하였다. 장수사 미륵불 조성과정을 통해서, 일섭이 시멘트와 석고로 불상을 만들게 되었던 이유를 시간 단축, 제작 인원과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장수사에는 법당 뜰에 약 4m의 거대한 미륵불상과 불상 주변에 시멘트 벽이 설치되어있는데,<sup>35)</sup> 일섭의 기록과 일치하는 모습이어서 당시 불상조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1958년부터 일섭은 장수사에서 불화의 출초를 한 후 입채를 제자에게 시키기도 한다. 대구 서봉사 불사는 신도가 찾아와 부탁하고 재차 방문한 후 한 달만에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sup>36)</sup> 당시 일섭의 작업 주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원준이 일섭의 밑에서 배운지 3년 만에 입채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준은 초지 등의 중요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다.<sup>37)</sup>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일섭의 제자 창영(서울), 유종(김제), 현오(부산), 석정(서산)이 차례로 대구로 모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준 사건으로 일섭의 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섭이 불사 외에 인물초상화를 의뢰받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작업한 것을 완성에 실패한다. 지금까지 일섭의 작업에서 실패라는 이례적인 경우였는데, 다음해 거의 1년 만에 김해에서 석주가 와서 결국 초상화를 완성시킨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다른 화원을 통해서라도 작업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일섭의 성실한 면모를 더욱 느끼게 한다. 1958년 8월 대구 광명사의 석가상과 지장상을 조성할 때 불상 1구 를 2일 만에 완성한다. 이렇게 빠른 작업속도는 불상제작의 숙련된 기술력도 물론 있지만, 제작과정에서 재료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섭의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불상조성은 대부분 장수사에서 만들어서 이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섭이 시멘트와 석고로 빠른 기간 내에 불상을 제작하면서, 재료수급이나 작업환경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sup>35)</sup> 이 불사에는 장수사 주지 이춘백(81세), 화주 김보덕화(71세), 보조화원 홍원준, 별좌 이복순이 참여하였고 1953년 일섭이 대구 장수사에 와서 처음 불사했던 칠성탱 화기에서도 동일한 인물들이다.

<sup>36)</sup> "1958년 2월 3일 대구시 대명동 서봉사 여신도가 1척 크기의 좌불 2위와 소본의 칠성탱 1축을 부탁하였고, 28일 다시 부탁하다. 3월 13일 시작하여 15일에 마치고 4월 1일에 도금하고 6일 점안하다. 원준이 함께 하다." 신은영, 앞의 논문, 162쪽.

<sup>37)</sup> 원준은 1958년 5월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후, 화원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가 11월 경북 영천의 불상조성에서 일섭이 원준과 함께 한다. 다음해 9월 원준과 순년의 결혼소식도 기록된다.

1958년 12월 일섭은 서울 청룡사 승방에 불상 입채를 위해 잠깐 올라가는데, 그사이 장수사에 도둑이 들어 일섭이 만들었던 관음불상 등 여러 점을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장수사는 지금도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데 당시 거기까지 2차례나 도둑이 든 것을 보면 일섭의 유명세로 인한 듯하다.

1959년 새해가 되자 일섭은 김제 부용사로 설을 지내러 간다. 이 때 사람들이 김제의 불사 건을 부탁하기 위해 일섭을 찾아오는데, 당시 김제 경찰서장까지 부용사를 방문해서 불사를 의논한다. 일섭은 이때부터 본가 부용사의 사찰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당 건축을 위해 법당 부지 안의 묘지 문제를 의논하기도 한다. 1959년에는 5월에 경주 불국사 대웅전의 불상 개금, 개채와 16나한상의 도분 불사를 위해 경주와 대구를 여러 차례 오가며 마무리하는데, 7월에 좌협시불의 얼굴 개수도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불사는 경주 불국사 대찰의 작업인데다 기존 불상을 수리하는 것이어서, 일섭에게 다소 흥미로운 작업이었을 것이다.<sup>38)</sup>

1959년 7월 12일 대구 신암동 신흥사 단청 불사에서 일섭이 페인트(뺨끼) 화가의 단청을 중지시키고 청토(靑土)로 입채를 시작해 내외부 단청공사를 마쳤다고 한다.<sup>39)</sup> 이 상황은 당시 사찰의 단청작업에 페인트로 채색하는 일반화가의 활동이 동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일섭이 사찰에 페인트칠에 대해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신흥사에 대한 기록이 1961년 11월 29일에 다시 보이는데, 본존상과 지장상의 개금작업을 착수하던 중에 부산 구포의 권정두가 와서 주인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12월 2일에는 권정두 삼형제<sup>40)</sup>가 와서 불상공사를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대구 신흥사 불사<sup>41)</sup>는 단청과 개금 등에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38) 일섭이 경주 불국사의 불상을 개금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통불상의 조성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39) 신은영, 앞의 논문, 167쪽. “7월 12일 대구시 신암동 신흥사로 가서 단청에 대해 말을 끝내고 페인트(뺨끼) 화가의 단청을 중지시켰다. 다음날 비계설비 중에 석산공장(石山工場) 주인이 와서 반대해서 일이 중단되고 16일 비계를 완성해서 청토로 입채를 시작했다.”

40) 권정두는 부산에서 활동하던 화승으로 구포에 작업장이 있었다. 이후 1967년 7월 9일 일섭이 부산 금정사 대웅전 불화작업을 완료하여 이운하여 갔을 때, 그곳에서 권정두 형제가 불상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연보』에 기록하고 있다. 1970년 제1회 불교미술공모전(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최)에서는 권정학 ‘관음불상’(특상), 김일섭 ‘석가모니후불탱화’(우수상)을 받았다.

41) 대구 신흥사는 일섭이 여러 차례 불사를 요청받아 작업하였다. 1954년 11월 본존상·문수상·일불 가금 및 후불탱·신중탱·칠성탱 조성, 1956년 4월 지장탱·산신탱·용왕탱 조성, 1958년 6월 제왕탱 조성, 10월 삼존상·원불상 도금분 등의 작업을 하였다. 특히 1958년 10월 20일 신흥사 이사기념불공일에 유공과 함께 참석하는 등 신흥사 전반적인 불사를 맡아했기 때문에 이번

있었던 듯하다.

일섭은 불사작업을 완료하면 대체로 해당 작품을 점안할 때 의식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일섭의 불사활동이 일반작가와와는 다른 화승으로서의 또 다른 구범 수행이었음을 엿볼 수 있겠다.<sup>42)</sup>

1950년대 대구에서 일섭의 작품 활동은 대구 일원의 작은 사찰, 신당의 불화와 불상 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일섭은 대구에서 거주하며 불사에 매진했고, 김제 부용사에는 가끔 재(齋)를 지내고 오는 것을 보면 부용사는 사찰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대구 장수사 역시 처음부터 일섭의 작품 제작소로서 역할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섭은 50년대에 대구로 와서 장수사에 주로 머물면서 대구, 경북, 경남 일대의 불사에 적극적으로 작업하면서 작업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활동하던 권정두 형제와의 분쟁도 있었던 것 같다. 60년대부터는 본가인 전북 김제 부용사와 대구 장수사를 수시로 오가며 전국적인 작업 활동을 보이는데, 특히 김제 부용사 불사와 가옥 수리에 힘쓰기도 하였다.

일섭은 불화의 출초를 대부분 직접 하였고, 제자 중에는 일섭의 사위와 손자도 포함되어 작품 활동을 함께 했다.<sup>43)</sup> 1960년대 후반부터 일섭은 출초의 기본 작업 후에 신창영(언수), 박유중 처소 등에 위탁하거나 점안의 최종 작업을 제자에게 맡기기도 하는데 고령의 나이로 그의 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하며 작업했던 것 같다. 일섭은 활동 당시에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60대 후반부터 71세 마지막 작업까지 모든 불사에서 조정우, 이충렬과 함께 했다.

표 5. 일섭의 1950년대 작품 목록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1951년 7.25~9.10	대구 정혜사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2축	조성	일섭, 창영
9.12~10.17	대구 극락암	백색관음좌상,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조성	일섭, 창영
10.15~11.22	대구 건불암	관음좌상, 본존상,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개금 조성	일섭, 창영

전각의 페인트 단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42) 일섭의 『연보』에 불사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 점안일과 점안 참석여부를 함께 기록하였다.

43) 일섭의 장녀 옥진과 결혼한 이중배(복송)와 옥진의 아들 이철우, 그리고 대구 현지처 이복순의 남동생 이복돌, 이들은 일섭의 불사 작품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11.24~12.24	대구 대봉동 수도원	관음좌상,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단군색화	조성개금 조성	일섭
~12.23	대구 남산사	본존상	조성개금	일섭
12.15	대구 정토사	11면관음상	개금	일섭
12.22~12.27	대구 정혜사	본존상, 지장상	순금개금	일섭
<b>1952년</b> 2.26~5.7	부산 법화사	시왕각부 등 13축	조성	일섭, 창영, 현오, 복래
3.17	부산 초량동	관음상	개금	
3.15~5.18	경남 해인사	후불탱, 신장탱	조성	일섭, 포공, 창영, 현오
5.11	김운호스님	달마도	조성	일섭
5.25~5.28	부산 법화사	시왕전 주련	조각	일섭
윤5.15	부산 법화사	42수관음탱	조성	일섭
윤5.15	부산 연심사	후불탱, 산신탱		일섭
8.10~9.8	대구 원만사	칠성탱, 후불탱, 산신탱	조성	일섭, 장원, 창영
9.10~9.13	왜관	산신탱	조성	일섭
10.25~11.6	대구 부인교당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조성	일섭
<b>1953년</b> 1.26~3.3	대구 보광사	후불탱, 독성탱, 인왕탱, 관음입상	조성	일섭
3.5	대구 정철우포교당	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본존상	조성 회칠	일섭, 장원
3~5.30	경북 영천 은혜사	사천왕탱, 칠성탱	조성	일섭, 창영
4~(10일간)	대구 선은사	신중탱	조성	창영
6.17~8.20	대구 장수암	칠성탱	조성	일섭
6.27~8.12	경북 영천 보현산	후불탱, 신중탱	조성	일섭
9.19~11.30	경북 경산 증심사	후불탱, 지장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 백색본존좌상	조성	일섭, 구봉, 창영, 현오
9.29~10.21	전남 목포 청명사	후불탱, 지장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구봉, 창영, 지족, 영욱
10.11~10.13	전남 목포 정혜원	칠성탱, 지장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구봉, 창영, 지족, 영욱
10.27~10.29	전북 정읍 매골	본존상	회칠	창영
10.28~12.9	김제 백구면 전안리	영신자신탱, 칠성탱, 산신탱, 주장, 천제	조성	일섭, 창영
11.20~12.10	대구 실상사	본존좌상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회칠 조성	일섭, 구봉, 창영, 현오
11.25~12.23	경북 청도 관음사	본존좌상	조성	일섭, 구봉
12.1~12.24	대구 견성암 승방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 용선, 보개	조성	일섭, 구봉, 창영, 현오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b>1954년</b> 12.16~2.5	경북 청도 보현사	칠성탱,산신탱	조성	일섭,창영
12.29~1.15	전북 김제 금복사	후불탱,용두 / 본존상,독성상	조성/보수	일섭
2.19~3.24	전남 목포 달성사	지옥도,인간도,극락도,칠성탱,산신탱	조성	일섭,창영,지죽, 지종
3.8~4.4	전북 전주 원각사	소조좌상(11척)	조성	일섭,장원
4.19~5.25	경북 경산 법흥사	후불탱,신중탱,칠성탱,산신탱/산신각	조성/단청	일섭,창영
6.11~6.15	대구 달성사	불상	금철 (인조)	일섭
6.20~9.9	대구 대원사	좌불(3척)	조성	일섭
6.27~8.27	대구 안일암(안진암)	후불탱,신중탱,칠성탱	조성	일섭
8.30~9.22	대구 관음사	소조관음좌상(2척)	조성	일섭
9.24	대구 장수사	본존상,미타상,지장상	가금	일섭
10.18~11.16 중단/ 1955년 윤2.26~4.10	경산 증심사	시왕상	조성	1954년 일섭 1955년 일섭, 구봉,원준
11.21~1.26	대구 신흥사	본존상,문수상,일불/후불탱,신중탱, 칠성탱	가금/조성	일섭
12.11~12.23	대구(대명동 허흥 소개)	관음좌상(2척5촌)	조성가금	일섭
<b>1955년</b> 1.27~2.22	대구 관음사	관음좌상(2척반)	조성가금	일섭
2.2~3.9	전북 전주 정혜사	불상8	개수	일섭,장원(弟)
2.24~윤3.9	대구 백련사	관음좌상(2척)	조성	일섭,원준
2.29~3.22 4.11~4.15	경북 청도 비구니절	후불탱,칠성탱,신중탱,산신탱,독성탱 불석관음좌상	조성	일섭,구봉,창영, 원준
2.28~3.2 3.3~3.22	대구 보각사	본존좌상(2척),좌우보살입상(3척), 후불탱,칠성탱,신중탱,산신탱,용왕탱	조성	일섭
윤3.20~윤 3.24	전북(정읍 서흥범 부탁)	백색본존좌상	조성	일섭
윤3.17~4.2	대구 관음사	신중탱2	조성	일섭,구봉,창영
4.5 4.6~4.20	대구 신암동수도원	본존상 후불홍탱	가금 조성	일섭,구봉
4.26~6.3	강원도 삼척 장명사	후불탱,칠성탱,신중탱,산신탱,독성탱	조성	일섭,구봉
9.2~10.1	대구 원적사	칠성탱,산신탱	조성	일섭,원준
9.16~10.3	대구 대원사(김룡사)	칠성탱,산신탱	조성	일섭,원준
9.17~10.8	대구 옥천사	금불좌상(3척)	조성	일섭,장원(弟)
10.11~10.22	대구 장수암	산신탱,용왕탱	조성	일섭,창영
12.12~12.24	대구 유양보씨	관음상(1척)	조성	일섭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b>1956년</b> 2.14~2.18	대구 신학송씨	관음상(1척)	조성	일섭
2.21~2.26	대구 건불암	관음상(1척)	조성	일섭
2.27~3.10	경남 창녕읍교당	인물, 뒷개화초, 시왕, 현왕, 고사, 용출, 불상	조성	일섭, 창영
3.11~	대구 성당사	법당	단청	일섭, 창영
3.13~4.18	대구 대덕사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용왕탱, 본존상	조성	일섭, 창영, 원준
3.19~3.30	대구 스님	석가모니상(2척)	조성	일섭
4.12~	대구 신흥사	지장탱, 산신탱, 용왕탱	조성	창영, 원준
4.22~5.15	전북 부안 보광사	괘불/삼존상	조성/개금	일섭, 창영, 구봉, 지죽
5.23~6.5	경북 영천 묘각사	칠성탱	조성	일섭
5.23~6.11	신녕교당	칠성탱, 인왕탱	조성	일섭, 창영, 원준
6.6~6.24	경북 포항 화장사	칠성탱, 후불탱, 신중탱	조성	일섭
7.21~11.14	경북 경산 증심사	5여래상, 육광보살상, 소조사천왕상	조성	일섭
9.19~10.19	경북 달성 현풍읍교당	칠성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10.3~11.27	대구 광명사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11.28~12.18	경북 영주 비로사	칠성탱	조성	일섭
12.7~12.19	경북 경산 소지암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조성	일섭
12.16~12.22	대구 화엄사	좌불상	조성	일섭
<b>1957년</b> 1.21~1.30	충남 강경 정양사	부처님탄생도, 성도도, 하강도/석가 불상	조성/개금	일섭
2.5~2.18	경북 영천 선정사	칠성탱	조성	일섭
2.27~3.19	경북 경산 해광사	상여	단청	일섭
3.15~4.5	대구 유양보씨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3.15~4.2	경북 칠곡(학송스님)	관음상	조성	일섭
4.23~5.6	서울 무량사	칠성탱, 산신탱	조성	일섭
5.9~11.8	대구 장수사	미륵불상	조성	일섭, 원준
7.14~8.24	대구 삼덕사	관음좌상(2척5촌)	조성	일섭
7.17~8.11	경북 경산 증심사	시련	조각, 단청	일섭
8.6~8.19	대구 운암사	지장좌상(2척)	조성	일섭
8.19~윤8.18	대구 대봉동교당	후불탱, 신중탱	조성	일섭
8.16~윤8.22	대구 대승사	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	조성	일섭
윤8.21~27실폐 1958.6.12.~6.21	대구 박순선	초상화	조성	일섭, 석주
9.22~10.7	경북 경주 주사암	삼성각단청, 삼성불사	조성	일섭, 구봉, 보하 등 5명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10.16~10.26	대구 (대승사 화주 소개)	산신탱	조성	일섭
11.22~12.15	경북 경산 성암사	아미타좌상(2척)	조성	일섭
<b>1958년</b> 1.8~1.24	전북 김제 부용사	관음,세지입상(3척5촌,시멘트)	조성	일섭
2.1~3.10	대구 극락암	지장탱,감로탱,동진	조성	일섭,원준,유종
2.26~3.25	경북 경주 복구암	후불탱,신중탱	조성	일섭,원준,유종
2.1~3.7	대구 신천동수도원	칠성탱,신중탱,산신탱,독성탱,미타탱	조성	일섭
2.30~3.15	대구 문수사	관음상	개금 (순금)	일섭
3.13~4.6	대구 서봉사	좌불(1척) 2위,칠성탱	조성	일섭,원준
4.12~4.15	경북 왜관 흥국사	관음상	개금	일섭
4.17~5.4	대구 강선암	본존상(2척반),좌우보처입상(3척)	조성	일섭,원준
4.27~5.4 5.6~5.16	대구 개림사	관음상,신중탱,칠성탱,영신탱, 산신탱,용왕탱	조성	일섭
5.7~5.28	대구 대덕사	산신탱,독성탱,천신탱	조성	일섭,창영,현오, 유종
5.16~5.30	대구 삼덕사	신중탱,칠성탱	조성	일섭,창영,현오, 유종
5.23~6.25	경북 경산 죽림사	사천왕탱	조성	일섭,유종
6.3~6.29	대구 신흥사	제왕탱	조성	일섭
6.6~7.13	대구 화엄사	신중탱,산신탱	조성	일섭
6.28~7.15	대구 장수사	석조관음불	조성 (도난)	일섭
7.10~7.28	대구 학림사	미타상,신중탱	조성	일섭
7.22~8.7	대구 맹인사	칠성탱	조성	일섭,유종
8.9~9.20	대구 광명사	석가상,지장상	조성	일섭,유종
8.25~9.23	대구 견불암	석가좌상(4척),제왕탱	조성	일섭
9.3~9.16	대구 황룡사	본존좌상(3척)	조성	일섭,유종
9.10~9.15	대구 선운사	본존좌상(3척)	조성	일섭,유종
9.24~10.16	대구 안일암	산신탱	조성	일섭
9.24~10.12	대구 대덕사	칠성탱,제왕탱,기미장군탱	조성	일섭,유종
10.18	대구 신흥사	삼존상,원불상	도금분	일섭
10.24~11.8	경북 영천 정태영불당	본존상(4척)	조성	일섭,원준
11.15~1.12	경북 경산 영원사	칠성탱,산신탱,후불탱	조성	일섭
12.25~12.27	서울 청룡사 승방	시왕상 각부,지장상,사자상,인왕상	입체	일섭,창영,종대, 정원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b>1959년</b> 2.7~2.20	대구 대봉동 최성훈씨	관음좌상(1척반)	조성	일섭, 원준
2.2~2.17	서울 청룡사	동자상9	조성	일섭
2.22~2.28	대구 일월사	칠성탱	조성	일섭
3.4~3.27	충남 서산 개심사 승방	대웅전3존불상, 지장상, 관음상, 본존상	개금	일섭
4.10~4.27	경북 경산 죽림사	후불탱, 본존상, 지장상	조성	일섭, 원준
3.30~4.5	경북 영천 영광사	칠성탱	조성	일섭
4.16~4.24	대구 대명동 점집	관음상	조성	일섭
5.1~6.3	대구 대원사	후불탱, 산신탱	조성	일섭, 원준
4.19~4.23	경북 경산 증심사	가장행구	조성	일섭
4.14~4.25	대구 보문사	관음상, 칠성탱	조성	일섭
5.3~5.28 7.8~7.11	경북 경주 불국사	대웅전삼존/좌우보처상/16나한상	개금/개채 /도분	일섭, 창영, 현오
6.16~7.7	대구 내원사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	조성	일섭
7.1~7.7	대구 도문사 점집	지장상	조성	일섭, 원준
7.18~7.21	경북 선산	불화	조성	일섭
7.13~9.1	대구 신흥사	법당, 산신각	단청	일섭, 현오, 원준, 오용, 문용호, 최 원해, 정우, 유종, 임의웅
7.22~7.25	경북 선산 약사암	불상	도분	일섭, 의웅
9.23~10.20	대구 황룡사	후불탱	조성	일섭
9.24~10.11	대구 대성사	후불탱, 원불/관음상	조성/수정	일섭, 원준
10.18~10.29	대구 내당동 점집	염라대왕도, 지옥왕도	조성	일섭
11.12~11.19	경북 영천 박두출씨	관음상(2척반), 칠성탱	조성	일섭, 원준
12.5~12.13	전북 김제 석담사	삼존불상	개수	일섭

## 2. 1960년대

1960년 새해에도 일섭은 부용사에서 설을 지내는데, 김제에서도 요청받은 불사로 바쁜 일정을 보낸다. 김제에서 작업할 때에는 부용사에 상주하지 않는 터라, 작업재료를 김제의 제자에게 시켜 구하고 그곳의 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섭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도 불화의 출초는 직접 하였다. 1960년 2월 대구 서봉암 괘불 제작에서는 출초작업을 제자 원준, 정우와 함께 한 것을 보면, 규모가 큰 괘불인데다 원준과 정우가 출초를 수행할 역량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60년 사월 초파일은 부용사에 일섭의 가족들과 제자들도 함께 하여 부용사 경내에 90여개의 연등을 밝혀 처음으로 부용사가 사찰의 모습을 보인 듯하다. 또한 다음해에는 동지불공을 위해 일섭이 부용사를 다녀간다.

1960년 7월에는 석정스님이 있는 진주 의곡사에서 3일간 머물면서 『비용각총화(飛影閣叢書)』와 불교서적 등 필요한 책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sup>44)</sup> 일섭의 일상은 끊이지 않는 불사 요청과 작업의 연속으로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고단함으로 떠올려지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다. 의곡사에 머무는 동안 석정<sup>45)</sup>과 많은 담소를 나누었을 것이고, 당시 근대미술교육기관의 교재로 이용되었던 『비용각총화(飛影閣叢書)』에 관심을 갖고 소장한 것을 보면 일섭의 예술정신의 일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석정이 7월에 보내온 『선문도독고(禪文塗毒鼓)』쓰기를 11월에 마쳤다고 하니 배움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일섭의 불사를 보면 석가상은 이틀 만에 완성할 정도였고, 장수사에는 미리 만들어놓은 불상이 있어 때로는 이런 불상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sup>46)</sup> 8월 대구 안일암 불상 개금불사에서 개금에 사용될 금박을 부산에서 구해왔는데, 평소 일섭의 불상조성이 손쉽고 값싼 재료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만큼 금박을 사용한 개금작업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또한 일섭은 8월에 장수사의 본존을 다시 조성한다. 일섭이 장수사에 와서 1954년 9월에 본존상과 미타상, 지장상 개금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작업이 개금이었기 때문에 이 불상들은 원래 장수사에 모셔져 있던 불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일섭이 새로이 장수사의 석가여래상을 본인의 작품으로 다시 만든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 장수사(선법사)의 본존상으로 추정된다.

1961년 12월 15일은 일섭의 회갑연이 있었던 날이다. 본가 부용사에서 4일간 회갑잔치를 열었는데, 김제에서 일섭의 가족과 많은 제자들, 친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큰 행사로 짐작된다. 일섭은 광주 사는 딸 복진과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고마운 마음을 표하였다.

일섭의 불사 가운데에서 가장 뜻깊은 작업은 1961년 순천 송광사 대웅전 단청이었을 것이다. 송광사는 출가하여 학업에 정진하면서 화승의 길을 걸기로

44) 신은영, 앞의 논문, 176쪽 참고.

45) 일섭은 같은 해 2월에도 부산에서 석정이 있는 의곡사에 머물렀다가 불사가 있던 옥천사에 갔다.

46) 군위교당에 이운한 불상은 장수사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불상이었고, 안동사람은 이미 조성한 불상을 가지고 간 기록이 보인다. 또 1961년 11월 20일 경남 하동 대승암 주인이 와서 본존상을 부탁해서 이미 만들어놓은 불상을 다시 수리해서 이운해가기도 하였다. 신은영, 앞의 논문, 176~177쪽 참조.

결심한 곳이었기에 불사를 진행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이다. 송광사 불사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는데 1월 26일 송광사 주지가 편지로 단청작업을 요청하여, 2월에 송광사를 방문해서 주지를 뵈고 공사대금을 350만환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공사는 송광사 대웅전의 내외부 단청, 대웅전 내부 벽화 및 각종 불화, 종각 단청의 세 작업으로 나누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대웅전 단청이 시작되었는데 57일간 회원 28인과 인부 950인이 참여한 대작업이었다. 6월에 대웅전 내부 벽화와 괘불, 후불탱, 신중탱을 회원 11인이 25일간 완성하였다. 8월에 시작한 종각 단청은 11일간 회원 9인과 인부 100명이 함께 진행하였다.<sup>47)</sup>

1962년 새해에도 일섭은 김제에 있는데 남산사 주지인 조카 진관이 부탁한 신중탱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다. 일섭이 신중탱을 출초하고 쟁틀을 만든 후, 이것을 대구에 있는 제자에게 입체를 시켜서 다시 김제로 이동하여 마무리한 것이다. 그동안 일섭의 작업을 보면 신중탱 1축 정도라면 혼자서도 며칠 만에 완료할 수 있었을텐데, 수고롭게 작품을 김제와 대구로 오가면서 작업한 점이 특이하다. 김제에 있을 때 일섭의 출생지인 보성의 초본이 와서 김제로 적을 옮기는데, 일섭은 전남 김제 부용사를 본인의 본적으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용사의 불사에도 힘쓰며 산신각을 새로 건축한다.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금정사 대웅전의 단청작업을 계약하고 23명의 회원과 인부 850명이 함께한 대작업이었다. 이때 일섭의 제자 회원들은 지난해 송광사 단청작업에도 참여했었다.<sup>48)</sup> 일섭은 8월과 9월 사이에 부산으로 와서 금정사 종각과 용왕각 단청불사를 6명의 회원들과 160명의 인부들과 작업한다.

1962년 5월에는 부용사 법당 상량식이 있고 6월에 법당이 완공되는데, 부산 금정사 단청불사를 하는 사이에 일섭은 김제 부용사와 대구 장수사를 사찰로 등록하였다. 10월에 진주 의곡사 주지 석정이 진주 대원사 삼존불상 조성을 의논하기 위해 대구로 찾아왔다. 다음해 1963년 2월에 대원사 삼존불상 조성에 착수하는데, 목조불상이 조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일섭은 산청에서 불상의 주요재료가 될 은행나무를 벌목하여 나무 껍질을 벗기고 제재를 한 후, 나무가 누렇게 되도록 건조시킨다. 3월까지 불상의 기본 재료작업을 마치고, 한

<sup>47)</sup> 신은영, 앞의 논문, 179~181쪽.

<sup>48)</sup> 회원은 김일섭, 송구봉, 김석주, 신차영, 최석주, 신연식, 김보하, 조정우, 이충렬, 이수철, 김용주, 김주천, 임봉득, 배인범, 박종엽, 최재화, 홍원준, 박유중, 유병욱, 이충남, 임영진, 김형중, 이삼렬 총 23인이며 성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7월 15일 제자 충렬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11월 25일 유중이 입대하면서 이후 작업에서 보이지 않는다.

참을 중단했다가 10월에 다시 대원사에서 삼존상의 기본 형태를 갖추는 목조각을 부착한다. 이 과정을 일섭은 23일간 진행하면서 매우 고심하면서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대원사에 가서 본존불과 양협시보살상의 세부 조각작업을 하는데 각 불상에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12월 말에 완성되었다.<sup>49)</sup> 이듬해 1964년 정월, 칠공예 전문 강태문에 의해 전문적인 칠 작업이 진행되었고, 3월에 개금하여 최종 점안까지 완료되었다. 일섭은 그동안 목조불상 제작을 좀처럼 하지 않았기에 거의 1년 만에 완성한 대원사 불상조성이 의미있는 작업이었을 것이다.<sup>50)</sup> 일섭이 목불작업을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완성하기까지 나무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장 좋은 상태의 재목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일섭은 불상조성의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1963년 6월, 경산 증심사 불사작업은 높이 11.4m, 폭 6.6m 괘불을 만드는데 큰 괘불을 만드는 과정이 이채롭다.<sup>51)</sup> 제자들과 직접 쟁들을 구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종이 불지 않고 떨어져서 불에 말리기도 하면서, 방학 중인 인근학교 교실에서 입채하였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 교실 바닥에 엎드려서 입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엄숙한 작업과정이었겠지만 정겹게만 느껴진다. 증심사 괘불작업을 마치고 바로 경북 직지사 삼존불상 보수개금불사에 들어간다.<sup>52)</sup> 삼존상의 개보수를 마치고 개금을 위해 천과 호분을 붙인 후 뻘뻘(사포)로 다듬어 카슈칠을 하여 그 위에 개금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간략하지만 당시 일섭의 불상 제작공정의 일면을 알 수 있는 데, 전통적인 방식에 옷의 대용품으로 널리 사용된 카슈를 사용했다.

1963년 9월에 김제 부용사 법당에 봉불식을 거행한다. 이로써 부용사에 새로운 법당과 불상이 봉안되었으니 사찰로서의 기본 모습을 갖춘 셈이다. 또한 이듬해 정월에는 부용사에서 49재를 지내기도 했던 사람들이 불상조성 시주를 결정하여, 일섭이 나무와 흙으로 아미타와 미륵불상을 만들어 미타미륵법당에 봉안한다.<sup>53)</sup> 이후 일섭은 대구에서 다른 사찰의 불사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부용

49) 『연보』에는 대원사 불상작업 중에 중단했다 다시 착수하면서 다른 불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만을 남기고 있어, 목조불상 제작공정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0) 일섭은 대원사 불사 중에 대구에 와서 신경통 약을 지어먹는데, 이내 위장통이 발병해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일도 있었다.

51) 신은영, 앞의 논문, 186쪽 참조.

52) 신은영, 앞의 논문, 186쪽 참조.

53) 이리에 사는 주씨 모녀가 부용사 불상조성개금에 十萬원으로 결정하는데, 현재 3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자료, 물가지수 참조)

사의 불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1964년 연말에는 전국화원대표로 서울에 올라가고, 대한불교미술협회 창립초대회장과 심사장으로 선출<sup>54)</sup>되는 등 일섭이 그동안 화승으로서 삶에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이다.

1965년부터는 대구 장수사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단청불사 등 전국 여러 지역으로 이동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불사요청의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유입된 국제도덕협회<sup>55)</sup>의 새로운 중국 도상과 밀교 도상, 심지어 십이지화투 그림까지도 작업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인다.

1960년대는 일섭이 화승으로서 걸어온 길에서 최고 전성기였는데 단청불사와 같은 크고 굵직한 작업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1969년(70세)에는 인간문화제로 지정되고 비교적 크고 중요한 불사를 주도했다. 1968년 서울시 성북구 수월암 불사는 3개월간 대웅전 단청과 후불탱, 신중탱 등을 조성하였는데 회원을 포함해 5백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일섭의 『연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섭의 주변 불사에 함께 작업한 회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외 가족의 대소사 정도여서, 실명이 거론되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 그 중 예용해는 2번 거론되는데 1961년 12월 한국일보 문화부장 예용해선생이 대구 장수사에 와서 불화계에 대해 인터뷰와 촬영을 한 후, 1970년 7월 한국일보 논설위원장 예용해선생의 부탁으로 단청문양을 정우가 다시 모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예용해의 부탁을 제자 정우가 한 것을 보면 71세의 일섭이 더 이상 작품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연보』에 기록된 마지막 작품활동 일지이다.

일섭의 작업이력을 살펴보면 당시 작업하던 일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54) 일섭은 연보에 1964년 12월 17일 전국화원대표들이 모여 <대한불교미술협회>를 창립하였고 초대회장과 심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971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주최 “불교미술공모전”에 반대해 9월 11일~22일 <불교한국미술작가협회>의 창립기념전시회가 있었는데 이때 회장이 김일섭이었다. <불교한국미술작가협회>는 제2회 불교미술공모전에 권정학 등 15인이 출품을 보이코트하면서 ‘불교미의 새로운 정립’과 ‘순수전통 불교미의 전수’라는 것을 내세워 독립전을 갖게 된 것이다. 제5회 “불교미술공모전”(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에 권영관(권정달 가족)의 후불탱화가 특상을 받은 것을 보면 <불교한국미술작가협회>는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964년 창립된 <대한불교미술협회>와 1971년 창립된 <불교한국미술작가협회>는 불교미술의 전통 계승이라는 추구하는 방향을 같을지 몰라도 같은 단체로 볼 수는 없다.(김영희, 앞의 논문, 144쪽에서는 같은 단체로 이해하였다.)

55) 국제도덕협회는 일관종, 일관도라고도 하며 1947년 중국인에 의해 한국에 유입된 중국 종교이다. 부용사는 국제도덕협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데,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일섭의 아내 박춘심이 도덕협회 회원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현재 부용사와 분쟁이 남아있다. 신은영, 앞의 논문, 193쪽 각주 360 참조.

곳의 불사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일섭은 화사가 된 이래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섭을 인터뷰했던 예용해는 기사에서 말이 없는 편이라고 했는데 일섭의 『연보』 필치에서도 차분한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

일섭은 평생 불교예술에만 전념하였고 불교미술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으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작업기한을 어기지 않고 완수했던 것을 보면 작업태도나 작업과정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6. 일섭의 1960년대 작품 목록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b>1960년</b> 1.3~1.8	전북 김제 금산사	소조미륵좌상	개수	일섭
1.10~1.20	전북 김제공덕리무당집	본존상,제갈,소강절,칠성,매화,산신,도로신 등 8축	조성	일섭,동룡,원해
1.22~2.19	대구 옥련암	후불탱,신중탱	조성	일섭,창영,현오,보아,언식,원준,정우
1.28~2.11	대구 청안사	후불탱,신중탱,석가상	조성	일섭
1.21~3.21	경남 고성 옥천사	팔상탱, 후불탱,용왕탱/용왕각	조성/단청	일섭,창영,보하,언식,현오,정우,원준
2.8	스님 승방	원불2폭	조성	일섭
2.27~4.6	대구 서봉암	괘불	조성	일섭,원준,정우
5.17~5.18	대구 당성 문산점집	석가상	조성	일섭
5.25~5.26	경남 해인사 백련암	본존상	조성	일섭
6.9~6.29	경북 영해 벌영동교당	후불탱,신중탱,칠성탱,독성탱,산신탱,관음원불탱2	조성	일섭,유중,정우
윤6.11~ 윤6.27	대구 만촌불교부인회	관음상	조성	일섭
윤6.28~7.6	부산 대각사	본존상	개금	일섭
7.6	경북 군위교당	불상	조성	일섭
8.7~9.6	대구 원적사	관음좌상	조성	일섭,정우
7.8~7.27	대구 영락사	후불탱,신중탱,칠성탱,산신탱	조성	일섭
7.13~9.2	경북 경산 삼룡사	후불탱,신중탱,칠성탱,산신탱,본존상(3척반)	조성	일섭
7.13~8.6	대구 신암동 유양보씨	산신탱	조성	일섭
7.20~8.27	밀양 스님	산신탱	조성	일섭
8.23~11.19	경북 의성 탑리교당	칠성탱,신중탱,산신탱,본존상(2척반)	조성	일섭
8.23~8.27	강원도 삼척	신중탱,관음탱	조성	일섭
10.3~10.15	대구 안일암	불상	개금	일섭,현오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8.29~9.13	대구 장수사	본존상	재조성	일섭
9.14~10.23	경북 영천읍교당	칠성탱,신중탱,산신탱	조성	일섭,유종
9.15~10.27	제주 보림사	후불탱,신중탱,칠성탱,산신탱, 지장탱	조성	일섭,정우
9.21~9.25	경북 청송 보현사	삼존불상	조성	일섭
9.19~9.29	대구 장수사	본존상	수리	일섭
11.20~ 11.25	경남 하동 대승암	본존상	조성	일섭
<b>1961년</b> 1.10~1.24	전북 김제 남산사	산신탱,칠성탱	조성	일섭
1.26~3.6	대구 서봉사	독성탱	조성	일섭,정우
1.26~3.6	경북 경산 천성사	본존상,보살상2,후불탱	조성	일섭
1.26~3.6	경북 경산 묘봉사	관음상	조성	일섭
2.8~3.12	경북 김천 남운사	선관하강도(칠성탱),신중탱	조성	일섭
2.23~3	경북 금릉 운수암	관음좌상,신중탱	조성	일섭
3.1~3.11	경남 고성 문수암	칠성탱	조성	일섭
3.25~5.22 6.1~6.25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대웅전 내부벽화,괘불,후불탱, 신중탱	단청 조성	김일섭, 최장원, 송구봉, 박상순, 김보하, 조정우, 신창영등 28인 /11인
7.6~7.10	대구 동인동 유제필점 집	신탱 6축	조성	일섭,정우
7.14~7.29	대구 대성사	좌불상(3척),산신탱,독성탱, 용왕탱	조성	일섭,정우,동룡
8.5~8.17	전남 순천 송광사	종각	단청	김일섭, 조정우, 이충렬,최원해등 9인
9.6~9.9	대구 선운사	산신탱	조성	일섭
9.2~10.7	대구 법련사	관음좌상(2척),신중탱	조성	일섭
9.19~9.22	경북 경산 불굴사	후불탱,미타탱	조성	일섭
12.1~12.20	대구 신흥사	본존상,지장상	개금	일섭,유종
<b>1962년</b> 1.2~1.18	전북 김제 남산사	신중탱	조성	일섭,정우,수철
1.23~2.8	경북 경산 불굴사	미타탱	조성	일섭,정우,수철, 충렬
2.30~5.4	부산 금정사	대웅전	단청	김일섭, 송구봉, 이충렬 등 23인
5.5	경남 통도사 수도암	산신각	단청	구봉,보하,종엽
5.16~6.7	부산 광명사	후불탱,신중탱	조성	일섭,정우,유종
5.7~5.10	경남 백운사	본존상	개금	일섭,유종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6.26~7.27	대구 건성암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7.10~7.19	대구 통천사	칠성탱	조성	일섭
8.24~9.27	부산 금정사	칠성각, 종각, 용왕각	단청	김일섭, 조정우, 김용주 등 6인
6.26~7.20 10.5~10.27	대구 김석범씨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10.25~ 11.13	경남 하동 대성사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8.17~ 63.1.19	전북 김제 부용사	산신탱	조성	일섭
<b>1963년</b> 2.8~1964. 3.21	경남 산청 대원사	삼존불상	조성	일섭, 정우, 현오, 총렬, 종갑
4.16~ 윤4.28	대구 정법사	칠성탱, 후불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4.20~ 윤4.16	경남 월내 묘관음사	종각, 삼문	단청	일섭, 원준, 정우, 총렬, 수철
6.3	부산 법제사	단청	청소	총렬, 정우, 원준, 수철, 현오
6.11~7.15	경북 경산 증심사	괘불	조성	일섭, 정우, 총렬, 원준, 수철
7.9~8.19	경북 김천 직지사	삼존불상	보수개금	일섭, 총렬, 정우, 수철
8.25~9.17	대구 원효사	본존상/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개금/조성	일섭, 원준, 총렬, 정우
9.21~10.3	전북 김제 금구교당	독성탱	조성	일섭
<b>1964년</b> 1.12~4.6	전북 김제 부용사	본존아미타상, 미륵상	조성	일섭, 총렬
3.25~4.17	전남 구례 상선암	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 독성탱, 인왕탱	조성	일섭, 총렬, 정우
4.24~5.12	경기도 수원교당	불화	조성	일섭, 정우, 총렬, 유종
4.28~5.7	전북 태인 옥천사	삼존상	보수개금	일섭, 유종, 종갑
5.8~5.19	전북 김제 부용사	삼존상	개금	일섭, 유종, 총렬, 정우
6.9~6.20	대구 정법사	불상/신중탱	개금/조성	일섭, 유종, 원갑
6.6	대구 운흥사	불상	보수	일섭, 총렬
6.14~6.26	경북 영천 김호범씨	관음상, 대세지상, 신중탱, 칠성탱, 독성탱	조성	일섭
7.9~10.18	전남 순천 송광사	시왕전, 박물관, 응향각/ 지장상, 무독귀왕상, 도명존자상, 시왕도	단청/조성	일섭, 구봉, 보하, 유종 등 28인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9.11~9.13	전남 구례 상선암	관음상	개금	일섭, 유종, 총렬
9.20~	전남 순천 금강암	신중탱, 산신탱	조성	일섭
11.22~ 12.25	전북 옥구 지경사	칠성탱	조성	일섭
11.28~ 12.15	전북 김제 부용사	산신각	단청	일섭, 삼렬, 도성, 우순
<b>1965년</b> 1.27~2.25	전남 구례 화엄사	신중탱, 후불탱	조성	일섭, 수철, 원갑
2.2~2.27	울산 북정동불교당	지장보살상, 지장탱	조성	일섭
2.29~3.3	경남 양산 통도사	사천왕탱	조성	일섭
3.12~4.30	전남 광주 증심사	시왕상 등 25	조성	일섭, 유종, 동룡
5.1~5.6	전남 광주 광륜사	미타, 지장, 독성 삼존상	조성	일섭
5.8~5.28	전남 함평 보광사	후불탱/관음상	조성/개금	일섭, 장원
6.4~6.22	경북 경주 백률사	법당내부	단청	일섭, 용주, 삼렬, 도성, 주천, 봉근 등 10인
6.25~7.30	대구 정법사	지장탱	조성	일섭
7.16~7.20	전남 광주 광륜사	독성탱, 불상3	조성	일섭, 유종
8.2~8.6	대구 칠성동 유창선처 점집	신탱	조성	일섭
8.15~8.21	전북 김제 부용사	관음, 세지보살상	개조	일섭
8.28~9.14	강원도 명주 백운사	산령각	단청	일섭, 유종
9.20~10.21	서울 자명사	후불탱, 신중탱, 지장탱, 칠성탱, 관음탱	조성	일섭, 유종, 총렬, 구봉, 평남
10.30~ 11.20	대구 신광사	후불탱, 신중탱	조성	일섭, 이복돌
11.20~12.7	경북 달성 보성암	신중탱	조성	일섭
11.2~11.19	경북 영천 남보살	산신탱	조성	일섭
12.29~1.3	전북 부안 청일암	일월룡도	조성	일섭
<b>1966년</b> 1.11~1.18	전북 김제 부용사	신중탱	조성	일섭, 총렬
1.19~1.22	전북 부안 청일암	제비, 까마귀, 참새, 기러기, 부엉이 81매	조성	일섭
2.8~2.27	전북 김제 부용사	대웅전 좌우보살상	보수	일섭
3.7	전북 김제 부용사	6위탱화	조성	일섭
3.13~3.25	전북 부안 개암사	흥무왕묘	단청	일섭, 이승대 등 13인
윤3.28	전북 김제 벽성서원	서원	단청	일섭, 이총렬 등 6인
윤3.16~4.4	서울 신학균 절	관음상	조성	일섭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4.17~	서울 진관사	후불탱,신중탱	조성	일섭
4.23~4.29	대구 총지사	본존상	조성	일섭
4.27~5.18	대구 대봉동 밀교	대일여래탱,여의륜보살탱	조성	일섭
4.22~5.10	경북 월성 주사암	용왕탱	조성	일섭
5.3~5.10	대구 총지사	후불탱,신중탱	조성	일섭
5.16~10.2	경북 칠곡 도덕암	후불탱,신중탱,산신탱,독성탱, 인왕탱,관음상,미륵상	조성	일섭
5.24	대구 황룡사	본존상	개수가금	총렬처소 위탁
8.3	경북 영천 동도사	관음좌상(3척)	조성	일섭
7.12~7.24	강원도 강릉 법왕사	후불탱,신중탱,산신탱,독성탱, 칠성탱	조성	일섭,정오
7.28~10.12	전북 전주 정혜사	사천왕탱	조성	일섭
7.25~12.26	서울 국제도덕협회본부	미륵상,관음상,제공상,관성상, 주창상,관홍상	조성	일섭
10.28~ 12.26	서울 중국법단	미륵상,관음상,제공상	조성	일섭
11.8	서울 밀교 손영근씨	18비준제보살탱	조성	일섭
<b>1967년</b> 1.11~1.21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후불탱3	단청/조성	일섭
2.2~3.20	경남 산청 정각사	대웅전,종각,산신각,삼문	단청	일섭,재화,총렬 등 9인
1.28~3.16	전남 영광 성명사	후불탱,신중탱,지장탱,산신탱	조성	일섭,수철
2.4~3	대구 대성사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4.6	전북 김제 부용사	6성탱	조성	일섭
4.11~4.25	전북 고산 백운사	대웅전	단청	일섭,삼렬
5.18~6.4	대구 화엄사	괘불(11척*9척)	조성	일섭,유종,철우, 정우
5.9~7.4	전북 완주 송광사	나한전 본존상,사천왕상	보결개금	일섭,최장원
6.1~7.9	부산 금정사	대웅전 후불탱	조성	일섭
6.18	밀교 손영근씨	여의륜상	조성	일섭
7.16	유철규씨	12지화투화	조성	일섭
7.19~7.29	서울 사자암	관음탱,후불탱	조성	일섭
7.27	경북 경주 불국사	대웅전 벽화	단청	일섭
8.3~8.12	부산 금정사	법당 불상닷집	단청	일섭,이성대
8.19~9.6	대구 신흥사	법당,산신각	단청	일섭,유종,정우 등 8인
9.4~12.2	경남 진주 불단 전남 순천 고대불당 전남 구례 불단	미륵상	조성	일섭
9.12~11.11	전남 광주 원효사	시왕상/ 관음상25,지장상,칠성상,독성상	조성	일섭,유종,길량, 동룡,병길/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유종처소 위탁
10.19	대구 안지랑사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정우처소 위탁
10.20	경북 경주 불국사	각 법당/후불탱, 관음원불상	단청/조성	일섭
10.21~11.3	전남 광주 형무소	석가좌불탱	조성	일섭
10.21~11.2	서울 대동염불회	정토탱화	조성	일섭
11.18~12.20	경북 경주 보현사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b>1968년</b> 1.20~2.15	전북 김제 부용사	대웅전	단청	창영처소 위탁 손자이철우보조
2.20~3.3	전북 전주 남고산성 관황묘	4장관	보수	일섭, 이철우
3.6~4.20 5.13~5.29	서울 수월암	대웅전 후불탱, 신중탱, 나한상	단청 조성	일섭 등 30인 일섭 등 500인
5.3~6.29	대구 관음사	후불탱, 신중탱	조성	일섭
6.14~ (2개월)	경북 문경 대승사	대웅전, 불이문	단청	창영처소 위탁 1000인
6.10~6.25	대구 칠성동 도덕불단	관음, 제공2	조성	일섭
6.20~8월	경기 의정부시 석림사	후불탱	조성	일섭
6.20~7.15	대구 원만사	삼장탱	조성	일섭, 유종, 수철, 정우, 총렬, 철우
7.1~8월	서울 만덕사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인왕탱	조성	일섭, 유종
7.14~7월말	대구 나점례부인교당	칠성탱, 신중탱	조성	일섭
7.15~8.11	대구 청수암	후불탱, 신중탱, 관음상25	조성	일섭, 수철
7.20~	충남 청양 장곡사	후불탱	조성	유종처소 위탁 수철, 철우
7.25~8월	경북 영천 동도사	법당, 칠성각	단청	창영처소 위탁
7.26~8.2	경북 월성 주사암	용왕탱	조성	일섭
7.24~9.24	전북 전주 국제도덕협회 지부장(이봉춘)	미륵, 관음, 제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7.24~9.24	경남 마산 국제도덕협회 지부장(윤기진)	미륵, 관음, 제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7.24~9.24	전북 남원 국제도덕협회	미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7.24~9.24	충남 부여 국제도덕협회 보인법단	미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7.24~9.24	전북 장수 국제도덕협회	미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7.24~9.24	전남 여수 국제도덕협회	미륵	조성	일섭, 유종, 철우, 총렬
8.1~	전남 나주 대성사	칠성탱, 독성탱, 산신탱, 대경, 독성상, 초상2	조성	일섭, 유종
9.4~11.21	경기도 고양 진관사	시왕상, 지장삼존상, 판관6, 동자6	조성	일섭

기간	장소	작품	내용	회원
11.24~ 12.20	경남 양산 흥룡사	천수관음탱, 신중탱, 용왕탱	조성	일섭, 수철, 수월, 정우
12.22~1.16	전북 김제 부용사	후불탱, 용왕탱	조성	일섭, 광성, 명신
<b>1969년</b> 2.9~3.24	경기도 고양 진관사	지장상//16나한상, 삼존상 시왕전, 칠성각, 나한전	개금/개채 단청	일섭, 정우, 수철, 철우, 남진 등 10인
2.3~2.14	전남 광주 관음사	관음상/석가모니탱	개조, 개금 /조성	일섭, 구봉, 영옥, 유종
3.29~4.25		법당 삼존상, 나한전 삼존상, 16나한상	개채	일섭, 남진, 장원
4.27~4.29	전북 완주 송광사	시왕전 존상	개안, 미수	일섭, 총렬
5.2~11.11	서울 진언종본부	관음상5위(석고)	조성	일섭, 총렬
5.7~5.15	대구 안지량사	후불탱	조성	일섭, 정우, 총렬
6.2~6.4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벽화	조성	일섭, 창영
6.5~6.16	서울 수월암	삼존불상, 대일여래상	개금	일섭, 정우, 총렬
6.16~7.6	서울 안양암	후불탱, 신중탱, 지장탱	조성	일섭, 정우, 총렬
7.30~8.14	서울 칠보사	후불탱/본존상	조성/개금	일섭, 정우, 총렬
8.26~9.5	대구 대덕사	본존상	개조, 개금	일섭, 이복돌
9.18~9.27	경북 영천 은혜사 중암	산신탱, 독성탱	조성	일섭
9.25~10.12	경북 포항 국제도덕협회	미륵조사상	조성	일섭, 정우, 총렬
10.3~11.8	경북 경주 백률사	삼존상	개조, 개금	일섭, 총렬, 수철
10.12~ 10.20	전남 구례 화엄사	시왕전 지장상, 관음상	개금	일섭, 총렬
11.17~ 12.25	충남 논산 양촌법당	미륵상2위	조성	일섭, 수철
11.28~ 1970.1.24	경북 김천 직지사	사천왕	개채	일섭, 웅렬, 승무, 명렬, 원철, 여종 환
<b>1970년</b> 2.4~8월	서울 진언종본부 (대전, 부산, 마산)	관음4위	조성	일섭, 명렬
2.5~2.20	경북 울산 문수암	관음, 문수, 보현상	조성	일섭, 총렬, 명렬
4.23~5.5	경북 영천 은혜사 백흥암	삼존상	개금	일섭, 정우
6.7~6.15	경기도 양주 봉선사	본존상2	개금	일섭, 정우
2.21~3.29	부산 금강사	법당문, 불탁	조각	일섭, 정우, 총렬, 명렬
6.23~7.23	대구 안지량사	본존상	개조, 개금	일섭, 정우

#### IV. 맺음말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전국 사찰에서 일어났던 활발한 불사는 불교예술을 그 어느 때보다 융성하게 꽃피웠고, 만든 사람 즉 화승에 대한 화파와 계보를 형성시켰다. 일섭은 금호약효의 제자였던 보응문성, 호은정연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불교예술의 전통을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시켰으며, 일섭의 예술정신을 제자들이 계승하여 일섭문도회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금어 일섭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 장수사에 거점을 두고 대구와 부산, 경상도 일대의 불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1938년부터 1950년대 이전까지는 김계 부용사를 거점으로 전라도와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의 여러 불사를 도맡아 작업하였다. 1950년대 이후 대구 중심의 활동은 경상도 지역까지 작업영역을 확장하여 일섭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적인 활동을 한 화승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섭은 대구 장수사에서 화승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며 경상도 일대의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였다. 20여 년간 일섭의 대구 행적을 통해 구체적인 불사내용과 단청·불화·불상의 작업방식, 기간, 참여화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일섭의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불사 중에는 점집, 무당집, 수도원, 도덕불당의 신상(神像)제작에 참여한 일이 적지 않았고 또한 석고와 시멘트와 같은 새로운 재료를 불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근현대기 화승들이 종교성과 창의성의 경계에서 고민했듯이, 화승 일섭이 1950년대 이후 힘들고 피폐해진 사회상황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일섭의 대구 행적을 쫓아 화승으로서의 삶은 여러 곳을 이동하며 계속되는 작업요청과 빠듯한 작업기한 등 오직 불교예술에만 정진해야하는 노력하지 않은 수행의 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와중에 일생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일지를 기록해왔다는 것은 일섭의 성실함 혹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화승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본고의 1950년대 이후 말년까지 일섭의 대구 행적을 통해서, 향후 『연보』에 소개된 일섭 작품의 현재 소재 향방을 찾아서 작품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작업을 과제로 남기겠다.

■ 투고일 2017년 8월 3일 |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30일 ■

## 참고문헌

- 고경 감수·신은영 역주, 『金魚 金容日變의 年譜』, 송광사정보박물관, 2016.
- 고성주, 「근대 탕화 작가 연구:김일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영희,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상조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상과 예술관」, 『불교미술사학』제9집, 2010.
- \_\_\_\_\_, 「금융 일섭(1900~1975)의 후기 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제14집, 2012.
- 김일섭, 「불교와 예술운동」, 『불교계』25, 불교계사, 1969.
- \_\_\_\_\_, 「불교의 예술운동」, 『불교계』29, 불교계사, 1969.
- \_\_\_\_\_, 「불교와 예술운동(4)」, 『불교』1, 불교사, 1970.
- \_\_\_\_\_, 「예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상)」, 『불교』16, 불교사, 1971.
- \_\_\_\_\_, 『현실에서 찾아보는 불교상식』, 삼영출판사, 1972.
- 신은미, 「화승 김일섭의 불화 연구」, 『강좌미술사』제26호, 2006.
- 신은영, 「金魚 金容日變의 『年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 일섭문도회, 「근대 불모 일섭 스님의 재조명」 학술세미나자료집, 2016.10.8.
- 예용해, 『예용해전집1;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각』, 양사재, 2007.
- 최엽, 「마곡사 화승 약효와 동시대 활동했던 화승들의 근대기 불화」,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 팻 헤켓 엮음·홍예빈 옮김, 『앤디 워홀 일기』, 미메시스, 2009.
- 『보응·일섭·우일 작품선집』, 통도사정보박물관, 2006.
-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Abstract

## Research on the Activities of Monk Keumyong Ilseob in Daegu

Choi, Eun-Ryung

Monk Keumyong Ilseob is self-made man who left big footprints in Korean modern Buddhist art history. Ilseob made many Buddhist art works including Buddhist statures, Buddhist paintings, and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and did not spare effort to train his followers.

He left "Chronology", a work journal recording his works. His "Chronology"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n Ilseob as it helps us to understand his works, life, family, friendship, art world, the location and his activities related to his works.

In this study, his activities from 1950 to 1970s in his "Chronology" were chronologically summarized to identify what he did in Daegu. Through his activities in Daegu, overall processes of Buddhist servic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Buddhist rituals at that time, period of production, production process, treasurer of the project and composition of painters could be identified.

Keumyong Ilseob worked at various Buddhist services in Jeolla Province, Jeju Island,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based in Gimje Buyong Temple from 1938 before the 1950s. From the 1950s to the end of his life, he led Buddhist services in Busan and Gyeongsang provinces based in Daegu Jangsu Temple. Activities after 1950s based in Daegu are meaningful in that he did not limit his activities to a certain region but to expand it to cover the whole country.

Among the Buddhist services Ilseob was involved in, there were statues for shaman's house, monastery and the Moral Association. He

utilized new materials such as plaster and cement to make Buddhist statues. Just as many contemporary and early modern monk painters wondered on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n and creativity, Monk Painter Ilseob had same agony. It seems that those works were result of his agony to come closer to the people in 1950s when life was hard and the neighborhood was war-torn.

Key Words: Keumeo, Keumyong Ilseob, Kim Ilseob, Chronology, Modern Times, Daegu Jangsu Temple, Gimje Buyong Temple, Buddhist Statue, Buddhist Paintings, Dancheong